

자

랑

스

런

안

전

인

제7호



한진기공 서인천사업소  
품질안전팀 심재호 대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모든 일에 앞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생  
활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 사업소에 맞는 최적화 안전활동에 도전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설비의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진기공은 그 기술력이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로 이미 향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기술력에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자율안전 문화가 있기 가능하였다.

이 곳 서인천사업소에서는 자율안전을 정착시키는데 앞장선 안전인, 제35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안전보건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심재호 대리가 이달의 자랑스런 안전인이다.

93년부터 이 곳 서인천사업소에서 안전업무를 진담한 심재호 대리는 사내 안전관련 제안이 현재 50여건에 이를 정도로 잠재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다. 이 밖에도 안전관련 제안을 통해 “터빈의 기어 회전용 안전작업 공구”, “터빈의 보호 블럭 분해용 안전작업 공구”, “천공기를 구비한 밀폐용기 안전 수거함”에 대해 실용 신안 특허를 출원 및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 중 밀폐용기 안전 수거함은 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개선사례에 출품되어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에서 짐작해 보건대, 심재호 대리의 눈은 안전에 대한 것은 모든지 꿰뚫어 보는 신통력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지금까지 무려 1,000개소의 위험요소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 무재해를 이끈 것도 이러한 생각을 더욱 더 들게 했다.

심재호 대리의 극성스러운 정도로 적극적인 안전활동은 올해로 무재해 4배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전체 16호기의 발전설비에서 해마다 20여건의 전면 개보수공사와 월평균 40여건의 개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무재해 4배는 의미가 남다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심재호 대리는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에 대한 영광을 서인천사업소 직장 동료에게 돌린다. 무재해는 나 혼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자율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아직도 다양한 공사형태에 맞는 안전설비를 100% 지원되지 않고 있어, 100%의 안전설비 지원과, 자율안전 정착으로 재해의 무결점 사업장으로 만들어, 작업자 중심의 최적화된 안전장구, 보호구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세계적인 한진기공의 기술력 만큼 안전에서도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심재호 대리의 포부다.

오늘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굵은 빗줄기 만큼이나 열의에 찬 심재호 대리를 보면서 포부가 현실로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날을 기대한다.